윤리와사상

1. 정답 : ⑤
해설 :
제시된 대화에서 스승은 에피쿠로스이다. ④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고통도 쾌락도 아니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⑤ 에피쿠로스는 참된 행복을 위해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식도락, 성적 욕구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순자이다. ㄱ. 순자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순화시키면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순자는 사단을 타고난 본성이 아닌 후천적인 수양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ㄷ. 인의예지의 사덕도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ㄹ. 순자는 예법을 선왕(예전에 살았던 성인인 왕)이 제정한 것으로 본다.

3. 정답 : ③
해설 :
갑은 스토아 학파 사상가,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①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스토아 학파는 정념(격한 감정)을 자기 내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③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객관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에 대한 내용이다. ⑤ 스토아 학파, 소크라테스 모두 행복을 위해 이성적일 것을 강조하였다.

4. 정답 : ①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① 노자는 인위적인 법적 규제가 많아지면 범죄가도 많아진다고 보았다. ② 노자는 백성들의 생명과 자연스러운 소박한 삶을 중시하였다. ③ 노자는 무력이 아닌 자연스러움의 통치[無爲之治]를 강조하였다. ④ 노자는 분별적 지식을 가진 자[賢者]를 숭상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⑤ 노자는 성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워주고[虛心], 욕망을 절제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5.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신의 창조물도 아닌 것이라고 보았다.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ㄹ.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6. 정답 : ④
해설 :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ㄱ. 공자는 자기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우선시하는데, 형벌의 공정성도 의로움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ㄴ. 공자에 의하면 인(仁)은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이다. ㄷ. 맹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으로 보았다. ㄹ. 공자, 맹자 모두 예를 필수적인 사회 규범 중 하나라고 보았다.

7. 정답 : ④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 병은 아퀴나스이다.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실천적 지혜는 교육을 통해서 탁월해질 수 있다. ② 플라톤에 의하면 용기와 절제는 모두 영혼(정신)의 탁월함이다. ③ 아퀴나스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이루어진다. ④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세계관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실재가 유일한 세계인 현실 세계 속에 있다고 보았고, 플라톤은 참된 실재인 이데아는 현상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았다.

8. 정답 : ⑤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혜능이다. ① 원효는 일체의 현상과 존재는 하나의 마음[일심(一心)]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② 원효는 유와 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혜능은 경전의 자구적 해석에 치우치는 것에 반대하였다[不立文字]. ④혜능은 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한다[禪定]고 보았다. ⑤ 원효, 혜능 모두 불성은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것이라고 보았다.

9. 정답 : ③
해설 :
갑은 밀, 을은 칸트이다. ② 밀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실천 이성이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의 요구와는 독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행위를 부과하고 스스로 따를 수 있으므로 도덕의 원리를 자율적인 원리로 보았다. ⑤ 밀은 공리의 원리를, 칸트는 도덕 법칙을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보았다.

10. 정답 : ⑤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① 주희는 기질[氣]와 본성[理]은 언제나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② 주희는 인간과 사물마다 기질[氣]이 바름, 치우침, 맑음, 탁함의 형태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왕수인은 이치와 사건[物]이 모두 마음속에서만 그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을 바로잡아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왕수인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면[致良知]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정답 : ②
해설 :
갑은 흄, 을은 벤담이다. ㄱ. 흄은 덕과 악덕의 판별은 이성이 아닌 사회적 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ㄴ. 벤담은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았다. ㄷ. 벤담은 경건함을 포함한 모든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벤담은 감정 자체가 아닌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인 공리성을 도덕의 원리로 보았다.

12. 정답 : ③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ㄱ. 이황, 이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 이이 모두 이는 형태가 없고, 기는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ㄴ. 이황은 부정, 이이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이가 작용이 있으므로 이발을 인정하였고, 이이는 이의 작용이 없으므로 이발을 부정하였다. ㄷ. 이황, 이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이황, 이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이가 마음 안에서 발한다고 하였고, 이이는 이의 발을 부정하였다.

13.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①, ⑤ 이황이 정약용에게 제기할 반론이다. ② 정약용은 사단은 사덕의 시작[단시설]이라고 보았고, 이황은 사단은 사덕이 마음속에 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단서설]라고 보았다. ③ 거경으로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이황과 정약용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④ 이황, 정약용 모두 사단을 선천적으로 지닌 감정으로 보았다.

14. 정답 : ①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①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③ 스피노자는 신을 유일한 실체로 보았으며, 인간이 신의 본성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④, ⑤ 스피노자는 신만이 자기 원인인 존재라고 보았으며, 인간과 신 모두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15. 정답 : ④
해설 :
강연자는 매킨타이어이다. ①, ⑤ 덕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았다. ② 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③ 공동체의 삶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목적 실현을 중시하였다. ④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각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16. 정답 : ⑤
해설 :
갑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를 주장한 이항로이다. ㉠, ㉡ 동학은 인내천을 바탕으로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하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함을 강조하였다. ㉢ 위정척사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이므로 예절과 의리를 강조한다. ㉣ 위정척사는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해악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 동학은 유교적 가치만 아니라 도교와 불교의 요소도 수용하였다.

17. 정답 : ②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왈처이다. ㄱ. 롤스는 긍정, 왈처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왈처는 롤스가 제시한 가상적 계약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이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ㄴ. 롤스, 왈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롤스는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되는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부당한 것으로 보았다. ㄹ. 왈처는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보았다.

18. 정답 : ⑤
해설 :
갑은 수정 자본주의의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의 하이에크이다. ㄱ. 케인스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ㄴ. 시장의 결함을 해결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 구제를 위한 대규모 정부 투자를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케인스, 하이에크 모두 시장의 원리를 인정한다.

19. 정답 : ④
해설 :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ㄱ. 루소는 주권을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ㄴ. 루소는 개인들의 의지의 결합체인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본다. ㄷ.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ㄹ. 루소, 홉스 모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개인들 간의 계약인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고 보았다.

20. 정답 : ④
해설 :
㈎는 마르크스, ㈏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X : ㈎> ㈏.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부분적 허용을 주장한다. •Y : ㈎< ㈏. 마르크스는 폭력 혁명을 통해, 민주 사회주의는 의회 활동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상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Z : ㈎> ㈏.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의 출현이 역사적 필연임을 강조하였고,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